

석사학위작품

마음 속 해와 달을 찾아서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은 영

석사학위작품
지도교수 김선태

마음 속 해와 달을 찾아서

2023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은 영

석 사 학 위 작 품
지도교수 김선태

마 음 속 해 와 달 을 찾 아 서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진 채 화 전 공

이 은 영

이은영의 미술학 석사학위 작품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한종호 (한)

심사위원 김신재 (원)

심사위원 박현규 (한)

마음 속 해와 달을 찾아서

이은영 석사학위 청구전

2023. 11. 22 - 11. 27

오랜 기간 궁중 회화와 민화 등의 전통 채색화를 모사하였다. 왕실의 번영과 길상, 장생, 화목 등의 염원과 교육적 메시지를 담은 궁중 장식화를 임모하며 전통 회화의 유형과 양식, 선, 색채 등의 조형적 특징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민화의 자유롭고 해학적인 도상에서 작가의 개성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옛 그림을 임모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담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욕구가 커졌다.

본 석사 청구전은 대학원 과정에서 습득한 전통 진채화 기법으로 제작한 30점의 작품 전시로 현대인의 욕망과 페르소나, 그리고 정체성에 관한 생각을 접목 선인장을 중심 소재로 하여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업의 시작은 수년을 함께하고 있는 선인장의 웃자람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옆으로 꺾이는 각도가 커져 방도를 찾아보지만, 선인장을 잘라 뿌리내리는 방법만이 검색되었고 알고리즘은 접목하는 사진과 영상으로 이어졌다. 웃는 얼굴로 선인장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 다른 선인장과 붙을 때까지 끈끈하게 묶어 놓는 모습에서 잔혹함이 느껴졌다. 선인장의 접목은 생존을 위해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특이하고 아름다울수록 고가로 거래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감을 충족시켜 상품화하기 위해 행해진다. 접목 선인장이 만들어지는 영상을 보며 사회가 정한 조건과 요구, 타인의 시선에 억지로 나를 끼워서 맞추었던 모습들이 오버랩되어 울렁거렸다. 그러한 불편한 잔상과 감정이 오래도록 지속되어 그 기저가 무엇일까 했을 때 욕망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학교에 입학하면서 자신이 좋아하고 바라는 것을 찾기보다는 정해진 틀 속에서 평가받으며 경쟁한다. 좋은 대학과 직업, 직장, 연봉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이라 평가받는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분주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자본주의 시장의 흐름과 타인의 일상을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면서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타인과 비교, 평가하며 편견에 강해지기도 한다. 내부 의지보다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채워지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 무능과 열등감으로 인한 불안과 초조, 절망 등의 씁쓸한 감정에 좌절하기도 한다.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 경계를 넘나들며 소란한 감정으로 작업을 시작하였다.

선인장은 작품의 영감을 가져다준 매개체이자 전시 주제인 욕망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건조한 열대 사막의 환경에서 자기 잎을 가시로 변형시키고 강렬한 태양을 향해 팔을 뻗으며 단단한 땅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강한 생존 에너지를 가진 욕망의 생명체로 해석하였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는 욕망을 탐욕에 가까운 욕구로 인식하였다. 날카로운 가시와 기괴한 형태로 접목된 선인장을 통하여 비릿한 욕망과 정체성을 상실한 채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작품이 진행될수록 욕망은 삶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경직된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 성장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추구하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외부로 향했던 시선을 전환하여 내부 에너지로 승화시켜 나다움을 찾아가고자 하는 욕망으로 풀어나갔다. 날카롭던 가시는 점차 몽뚝해지고 없어지기도 하며 뿌리는 더 길고 풍성해진다. 말캉한 선인장의 표피는 목질화되어 단단해진다.

화면은 세밀함과 투박함이 동시에 느껴지도록 구성하였다. 인물과 손동작은 생각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에 유기안료를 이용하여 전통 초상화기법으로 섬세하게 표현하였다. 반면 선인장과 뿌리, 괴석 등은 무기안료를 동시에 얹거나 여러 번 올리는 중채기법으로 석채의 입도를 활용하여 거칠게 재질감을 내고 고분기법으로 쌓아 올렸다.

붉은색과 검은색은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상징하는 동시에 무겁고 응축된 감정을 전달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안료를 여러 층으로 쌓아 발색을 끌어올려 색채대비와 명암대비를 통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강조하였다.

작업은 비단과 한지에 아교를 이용한 전통 채색기법을 기본으로 한다. 비단은 매끈하고 투명한 물성을 가지고 있어 섬세한 작업이나 배채기법을 이용하여 깊이감과 입체감 있는 표현을 할 때 사용한다. 한지는 안료를 도톰하게 쌓아 올려서 작업하기 때문에 편의성 및 작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선호하는 바탕재이다.

채색 작업에서 석채는 쌓여갈수록 빛의 굴절에 따라 선명하고 깊이 있는 발색을 느낄 수 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안료이다. 안료의 중첩을 이용하여 밀도감 있는 느낌을 내고자 할 때는 무엇보다 바탕재의 기초 작업과 안료를 겹 때 아교액 농도, 물의 양이 중요하다. 작업 중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되는 아교와 물로 인한 얼룩은 없애려 하기보다는 얼룩을 이용하거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만들어 활용하고자 하였다.

30개의 작품 중 17점에서 금박, 은박 등의 금속박을 사용하였다. 이는 금속이 안료로 구현할 수 없는 특유의 광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빛의 반사 각도와 그림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감상자가 투영되어 흐릿하게 엮히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박을 그림 전면에 붙인 후 안료나 종이를 얹거나 비단 뒷면에 박을 붙여 광택을 조절하였다. 때로는 충격을 가하여 크랙을 유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은박을 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어 결국 흑색으로 변해 부스러지는 물성이 마치 어린아이의 반짝이는 피부가 어른이 되어 주름이 생기고 검버섯이 생겨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욕망이라는 주제만을 가지고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듯 작업을 시작하였다. 초반의 생각과 구상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었고 전시 작품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야 작품을 그리며 인식하지 못하였던 나와 마주할 수 있었다. 작품들을 통해서 인식하지 못하였던 내적 욕구를 인지하며 나의 내면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작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

전통 재료와 기법은 까다롭지만, 뛰어난 우수성과 고아한 매력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다양한 현대 재료와 색채, 표현 등을 수용하여 나만의 조형적 표현 기법으로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못생긴 속내

한지에 채색
130.5 x 97.0 cm
2023



Hold on II

비단에 채색
87.0 x 67.5 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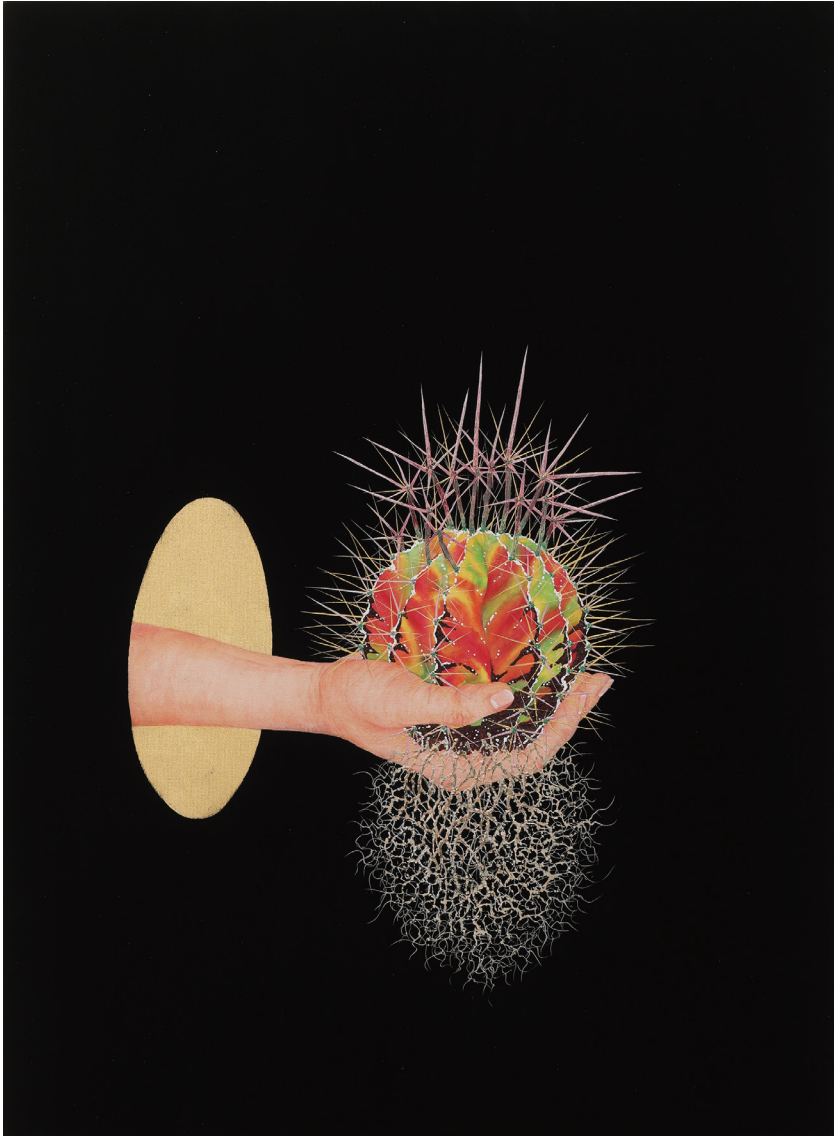


Hold on I

비단에 채색
37.5 x 25.0 cm
2022

Hold on III

비단에 채색
56.5 x 41.5 cm
2023





마음 속 해와 달을 찾아서

한지에 채색
142.5 x 98.5 cm
2023



비릿한 욕망

한지에 채색
130.5 x 97.0 cm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에 채색
60.0 x 40.0 cm
2022



몇 겹의 마음

비단에 채색
64.5 x 45.0 cm
2023



회피

한지에 채색
26.0 x 26.0 cm
2022



경계

한지예 채색
60.5 x 50.0 cm
2022



힘을 내요

비단에 채색
44.0 x 36.5 cm
2023



침묵의 나선

비단에 채색
68.5 x 88.0 cm
2023



피라미드

한지에 채색
26.0 x 18.0 cm
2023

갈망일까? 욕망일까?

한지에 채색
65.0 x 91.0 cm
2022





뽕족한 마음 I -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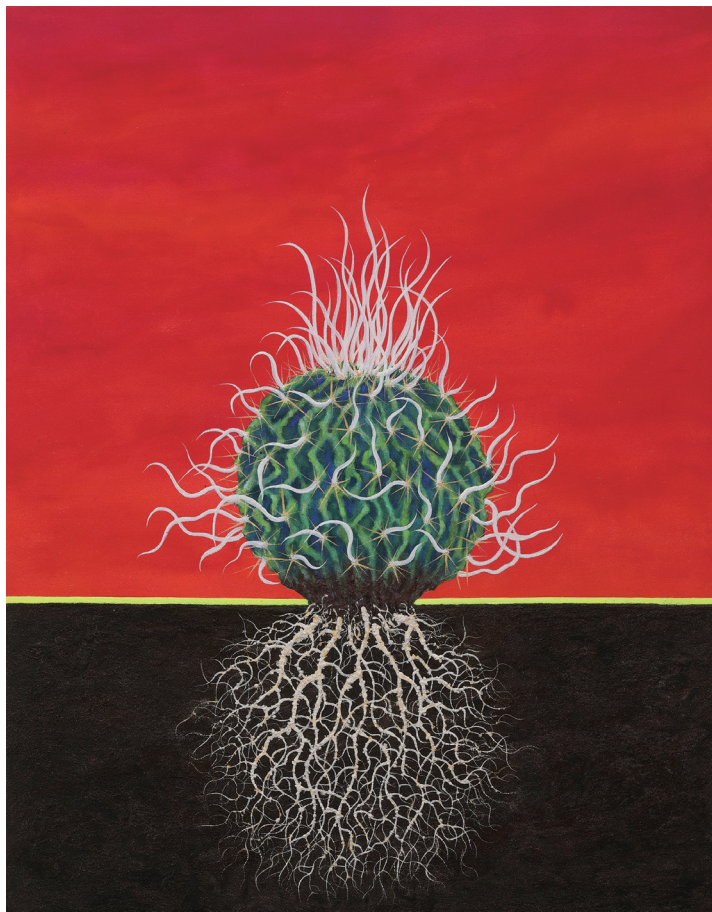
한지에 채색
91.0 x 60.6 cm x 4pcs
2023





덧없음

비단에 채색
21.0 x 16.0 cm
2022



경계를 넘나들며

비단에 채색
37.5 x 29.5 cm
2023



한 조각의 진심

비단에 채색
52.5 x 37.5 cm
2023



성형

비단에 채색
57.0 x 45.5 cm
2022



느슨한 연결고리

한지에 채색
67.0 x 44.5 cm
2023



무중력의 공간_고립

한지에 채색
31.0 x 19.0 cm
2022

무중력의 공간_비상줄

종이에 채색
33.0 x 28.0 cm
2022



웃자람

비단에 채색
54.0 x 26.0 cm
2021



강요된 침묵

한지에 채색
51.0 x 36.0 cm
2021



음밀한 욕망

비단에 채색

65.0 x 45.5 cm

2022



Diversity

비단에 채색
39.0 x 27.0 cm
2021



Conatus

비단에 채색
80.0 x 61.0 cm
2023